4부

# 산알아비여 안녕

박재일 선생은 2010년 8월 19일 05시 20분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이의 유지대로
일체의 부의금과 화환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21일 서울 천주교
방배동성당에서 열린 추도식과
충남 괴산군 청천면 장례식장에
함께한 사람들, 해외에서 보내 온
추모의 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추모의 글

## 산알아비여 안녕

누가 당신을 일러
'산알아비'라 부르더이다
산알은 생명이니 햇곡식이요
그 아비이니 세상의
밥 걱정하는 양반의 뜻.
듣기 좋더이다
이제 고생 많던 이승을 떠나
그 시커먼 제기동 가게도 떠나
영덕 큰 바다 같은 저승에서
산알이 사리가 되시는 때
사리아비이니
왈
한울님.
생각만 해도 좋소이다
이젠 우주 걱정 하소서
부디 평안하소서 안녕.

_ 김지하 삼가 모심

## 생자인농生者仁農, 한살림의 혼으로 피다

오늘 산이 무너졌다
세상의 동종銅鐘이 모두 소리 내어 울고 있다

밥상살림의 한 길을 걸어
마침내 생명살림의 큰 산을 이룬 사람
아직 가 보지 않았던 길
누군가 앞장서 열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

그가 걸어온 길
이제 큰길이 되었다
한살림의 길
함께 살고 모두를 살리는 큰 살림의 길

밥상살림이 땅살림 물살림이요, 생명살림이니
밥상을 살림이 마침내 세상을 살림이니
밥 속에 모셔진 하늘을 보아
한 그릇의 밥상을 제대로 마련하고 모시는 일이
자기 속의 하늘 밝게 드러내는 것이니
그렇게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것이니
자신의 생명마저 상품으로 사고팔며
독이 든 먹거리 다툼으로 눈먼 세상 속에서
생명의 밥상을 함께 마련하고 나눔으로
농촌과 도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길 맞잡고
서로의 생명과 살림을 내맡기며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모심으로써 품어 안는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개벽의 새 세상을 온 몸으로 열어 온 사람

인농,
일찍이 어진 농부의 길을 걸어라 하시던 당부를 가슴에 새겨
평생 한 평의 논밭을 갖지 못했지만
밥상살림의 오롯한 한길로
자신을 갈고
마침내 온 세상을 갈아
생명의 밥상을 마련했던 이 땅의 가장 큰 농부
우주의 참 농사꾼

인농 박재일 선생
이 땅에서 생명평화를 꿈꾸던 이들의
맏형 같았던 사람
오라버니 같았던 사람
생명살림의 큰 살림꾼이었던 사람

온 몸으로 세상의 고통을 함께 앓던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한살림의 앞길을 기도했던 사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당부했던 사람

오늘 그가 갔다
그렇게 큰 산이 무너졌다

그 산이 무너진 자리
그 산에서 빚어 만든 동종들이 함께 큰 울음 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산들을 본다
연이어진 그 봉우리마다 품고 있는 인농의 꿈

모심과 살림의 대동세상을

인농, 그는 갔다
이 땅에서 해야 할 그의 몫을 다 감당했으므로
훌훌 몸을 벗어
지워지지 않는 생명 모심의 이름이
꺼지지 않는 생명살림의 불꽃이 되었다

한생을 오롯이
세상을 살리는 밥상이던 삶을 접고
마침내 오늘
한살림의 영원한 혼으로 피었다.

_ 인농仁農 선생의 영전에 여류如流 이병철 모심

## 박재일 회장님!

세상에서 가장 큰 농사를 짓던 당신.
작은 욕심 버리면 모두 한 가족 되어 살 수 있다며
한살림을 꿈꾸던 영원한 청년. 이제 정녕 떠나가시렵니까.
뜨겁던 여름의 끝자락에 날아든 비통한 소식에 우리는 모두가 황망합니다.
생명의 길 살림의 길, 갈 길이 아직 먼데 기어이 우리를 두고 가시렵니까.
시장의 논리에 인정이 휩쓸리고 사람이 왜소해지던 그 때
우리 농업과 농촌의 운명이 벼랑 끝에서 위태롭던 시절,
당신은 모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살자, 함께 이마를 맞대고 손 맞잡으면 모두가 가족이 되고 살 길이 있다."
한살림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단 작은 쌀가게에
원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은 당신
삶 전체가 한살림이었던 당신, 당신이 있어 우리들은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육신이 이토록 고단한 줄도 모르고
저희들은 행복한 꿈 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밝고 환한 곳으로 당신이
꿈꾸던 한살림 온전한 그곳으로. 아니 당신의 지친 몸은 보낼지언정
당신의 그 순진무구한 꿈,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상,

그 꿈은 영원히 간직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일 회장님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_ 장례위원장 김민경 이경국 이길재 모심

실천하는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한살림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한살림박재일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여소부리공동체생산자 일동

## 이 자리에 꼭 함께 계셔야 될 분,
##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께선 늘 저희에게 스승이며 어버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는 배움을 미쳐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자애로운 품을 잃어버린 비통함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무슨 말이든지 끝까지 마음껏 하도록 기다리며 지긋이 경청하시던 모습,

"이게 말이지, 한살림은 재미나게 하는 거란 말이지" 하며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도시에서 농촌에서 생명을 살리는 밥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살림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오신 당신, 높은 이념과 말씀만이 아닌 몸으로 실천해오신 당신, 마지막 순간까지 굶주리는 북녘 동포를 걱정하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보여 주신 경청의 모습과 자애로움을 기억하며 못다 이루신 살림세상의 꿈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을 보내고 슬픔으로 가득 찬 가족들을 당신이 계신 듯이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위로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내겠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와주신 다나카 요코 회장님을 비롯한 그린코프 연합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하늘나라 가시는 길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이승의 손을 놓아드립니다.

_ 사단법인 한살림 회장 김민경 올림

## 생명은 그이의 평생 화두

시대는 생명의 때다.

평화와 함께 생명이 이 시절의 총 화두다.

그 생명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걱정하고 애써 마련하는 이가 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때다.

박재일,

이 분이 바로 그 귀한 분이다.

이 분이 돌아가셨다.

어찌 서운하고 서럽지 않으랴!

평생을 생명 한 글자에 그야말로 생명을 바치신 분. 남들 몰두하는 일체 가치 너머 삶의 근본에서 그 근본을 꿰뚫을 때 더욱이 그것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렇다! 생명적으로 관철하셨다.

'생명문제의 생명적 관철!'

모심!

'밥'이다.

'밥'이 박재일 선생의 최고 철학이었다.

귀하신 분 가시는 길에 어찌 상서로운 꽃다발이 없을 수 있으랴!

나사렛 예수는 밥을 '사크라리온', '현실적 신성성' 혹은 '거룩한 지역'이라 불렀으니

성찬聖餐!

운문선사雲門禪師는 '진진삼매塵塵三昧'라, 다름 아닌 '화엄법신華嚴法身'이라 하였으니

한살림!

해월 선생은 '밥 한 그릇이 만사지萬事知'라 드높이 칭송하였으니

모심!

박재일 선생은 바로 이 '현실적 신성성', 곧 현대문명사 최고의 숙제인 '마음 속의 몸'을 실사적으로 탐구하신 수도자다.

다름 아닌 '산알'이다.

이제 우리는 깊이 고개 숙여 이 분의 뒤를 따르는 일, 참으로 거룩한 '사리'를 찾아 현실의 숲과 몸을 헤쳐나가야 할 때다.

안심하고 편히 가소서 총총.

_ 못난 벗 김지하 삼가 모심

## 인농 박재일 형 영전에

어제도 그제도 저는 박재일 형을 생각하면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찬을 먹었습니다. 한살림에서 배달해 주는 채소를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느라고 정작 박 형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농약, 살충제, 제초제 등 죽임의 독약으로 범벅이 된 먹을거리들을 우리 밥상에서 몰아내고 건강한 먹을거리로 바꿔 내려는 운동에 나선 박 형과 동지들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유기농 무상급식까지 하게 될 이즈음에 박 형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현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86년 서울 동대문 밖 제기동에 문을 연 한살림농산이라는 작은 가게가 25년 만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박 형과 동지들의 발자취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엮는 직거래를 목표로 시작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오늘의 한살림운동으로 발전하기까지 긴 세월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님, 장일순 선생님, 김영주 선배님, 김지하 시인, 그리고 박재일 회장을 비롯한 원주 사람들이 민주화운동과 분단극복운동 너머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명운동을 모색하고 실천한 결과가 한살림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 추구, 경쟁과 배제, 생태파괴 그리고 죽임으로 상징되는 현대 인류문명의 끝을, 다시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산과 소비의 호혜, 밥상의 살림 그리하여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하려던 것이 한살림운동의 목적이었습니다.

박 형은 4월 혁명과 6·3 대일굴욕외교반대운동에서도 동년배들 속에서 언제나 맏형이었습니다. 큰 바위처럼 말없이 언제나 필요한 자리에 서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톨릭농민회 회장, 원주소비자협동조합 회장 등 박 형이 이끈 운동은 거센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의 활로를 열고 아울러 오염으로 찌든 도시민들의 밥상을 씻어 내는 일이었습니다.

칠순이 넘도록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묶어 우리 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꿔내는 운동을 벌인 활동가는 박 형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박 형을 비롯한 한살림 활동들의 실천이 20여 년 전인 1989년 선포했던 '한살림선언'을 새롭게 주목하도록 만들고 식민지, 분단, 전쟁, 양극화, 생태파괴, 오염, 죽임으로 점철된 이 한반도에서 마땅히 울려 나와야 할 생명선언과 그 실천은 대안문명을 향한 진지한 모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박 형이 시작하시고 남겨 놓으신 숙제들은 남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이어서 짐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현숙한 부인 이옥련 여사와 다섯 따님들과 네 사위들은 박 형의 유지대로 꿋꿋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힘든 짐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소서.

_ 이부영 배상

## 당신은 우리 농민의 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 농민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 주는 아버지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농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농민의 친구였습니다. 늘 가까이 다가와 막걸리 잔을 나누며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 주고 함께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농민의 스승이었습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농민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구요.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살기를, 늘 함께 나누고 용서와 화합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생명을 돌보는 대지의 어머니, 진정한 농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장님과 함께한 24년은 우리 한살림 농부에게 큰 기쁨과 위안, 행복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남아 있는 우리들은 당신이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농업살림세상, 생명살림세상의 큰길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행복한 농촌마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도농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늘 말씀하시던 "농촌과 도시는 하나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우리는 한살림이다"라는 말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해온 24년은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보내면서도 늘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 확신하기에, 또 우리 모두가 당신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실거라 확신하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인자하신 미소와 부드러운 음색을 늘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재일 회장님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따사로운 햇빛이 되시고 은은한 달빛이 되셔서 이 땅에 뭍 생명들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이 되셔서 농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한 생명세상 우리가 꼭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2천 생산자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불러 봅니다.

박재일 회장님!!

_ 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 회장 이호열

## 당신의 실천이 일군 변화를 기억하며

가신 이를 기리는 상투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훌륭한 인물 박재일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판에 박재일이 먼저 간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박재일의 학생운동가 면모,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협동조합 '한살림'의 성공담과는 별개로 숨 막히는 군사정권 시절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감이 나에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가로서 고 지학순 주교 · 장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원주권'을 서울의 재야 세력과 연결하는 고리의 하나가 박재일이었는데, 이 일에는 김정남과 정성헌을 빼놓을 수 없다. 박재일을 처음 만났을 때 당당한 체구와 과묵함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느꼈으나 말수이 적을 뿐 그는 의견전달자로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다.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이른바 '오원춘 사건' 당시 그가 안동에서 열린 집회에서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을 앞에 놓고 행한 열변을 나는 현장에서 들었다. "형제 여러분"이라는 그의 말문은 신앙공동체에서 흔히 쓰는 것이지만 그때 거기서는 가식과 위선의 냄새가 풍기지 않았다. '농협 민주화', '우리밀살리기',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운동가로서 실천해 온 그의 삶 자체가 담보된 표현이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과묵함의 또 다른 일면이겠으나 경북고–서울대 출신인 박재일은 학력을 자랑하는 패들이 흔히 즐긴 이데올로기 담론에서 거리를 둔 사람이

다. 도산 안창호가 말한 '무실역행'이 어떤 것을 상상했던 지는 찍어낼 수 없지만 농민운동가와 협동조합 조직 및 관리자로서 묵묵히 일하여 구체적 성과를 올린 박재일은 우리 시대의 그 살아 있는 본보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젊은 세대는 무실역행이란 표현이 고리타분하다며 그 실체에 의문을 던질 것이다. 번드르르한 변설보다 실천을 중요시하며 그 일에 자신이 앞장서는 자세가 박재일이 보여준 것이라고 답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박재일은 이를테면 분단 시절 서독의 사민당 수상 헬무트 슈미트 같은 사람이다. 그는 화려한 수사의 사민당 이론가가 아니었고 현장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독일말로 마허Macher · 실행자 · 실행지도자가 슈미트였다. 10여 년 전 독일인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의 아버지는 사회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실천가 슈미트가 좋아서 사민당에 표를 던진다는 거였다.

가신 임, 박재일의 뜻을 잇는 길은 더 많은 박재일이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_ 임재경 / 언론인

## 박재일 동지, 가시는 길 평온하옵소서

박재일 형제님, 왜 그렇게 서둘러 가시옵니까?

가시는 동지의 등 뒤에 비치는 주마등에는 이 땅에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려!

국가권력마저 자본시장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농업을 지키자고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국가권력은 외면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농업은 농민과 소비자가 생명논리로 결속되지 않으면 살릴 길이 없다는 판단으로 시작한 한살림운동이 동지의 뜻대로 활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똥이 사방으로 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농도 그 불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묵한 성품이지만 은은하게 비쳐 나오는 다정다감한 언행에 모든 동지가 당신을 좋아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후배들이 틀린 생각을 고집할 때도 직설이 아니라 돌아가는 여유를 갖고 비유하고 반문하면서 후배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생각을 들려 주는 박 동지의 리더십은 우리 조직에 귀감이 되는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박 동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우리 아이들이 나의 생일을 잘 챙기는데 그 이유가 생일을 여러 번 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지난 생일날 아이들 앞에서 고백했다오.

유산을 넘겨 줄 것이 없어 죄스럽다고 말이요.

그러나 나에게도 쓸 만한 재산 하나는 있다고 큰소리를 치니 아이들의

시선이 모아졌죠. 그때 나의 재산을 공개했답니다.

30대에 굳힌 뜻 그것이 소신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잘 된 것이든 못 된 것이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갖고 가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오!

아이들이 동의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진시 알지 못함이 죄스럽다는 눈치였다오.

세상에 믿을 데가 없고, 믿을 사람 없고, 저 사람이야 했던 지도자도 어느 날 곡학아세하면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소중함을 후세는 말해줄 것이오.

박 동지의 가시는 길이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보기 때문에 자녀들은 슬퍼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노라 다짐할 것이오.

박 동지, 이제 남은 일일랑 남은 사람들이 몫이요. 부디 평온한 마음으로 가시옵소서.

_배용진 전 안동교구연합회장/가톨릭농민회《농민의 소리》2010년 9·10월호

이웃 나라에서 온 추모 글

고 박재일 선생은 생전에 이 땅의 농민과 자연을 사랑하셨던 만큼 해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과 굳건히 함께 연대하며 생명살림을 실현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해외 인사들이 전해 온 애도의 글을 모았습니다.

**[ 일본에서,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 ]**

경애하는 박재일 선생님

선생님의 급작스런 비보를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스승을 잃었다는 슬픔으로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건강하실 때의 모습이 떠올라 부고를 접한 지금도 믿기질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히 오래도록 살아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먼 곳에서나마 그 모습을 떠올리며 명복을 빌 수밖에 없음이 가슴 아픕니다.

생각해 보면 선생님과의 만남은 한일 교류의 시작이었고, 어느덧 십수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과 우리들의 공통된 염원은 한일 양국의 제1차 산업이 잘 발전하고, 생명을 기르는 산업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그 담당자인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파고는, 세계 도처

1981년 일본 사이타마현 근로자생협 교류.

에서 농민을 피폐시키고, 소비자들로부터는 먹을거리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파고에 대항하여, 우리들은 일어섰고 싸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감에 충만한 교류를 쌓아 왔던 것입니다.

이런 연대와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재일 선생님은 항상 그 연대의 중심에 계셔 주셨고, 우리들을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도 또한 선생님의 뜻을 배워 발족한 운동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선생님께서는 민중기금의 이사 취임을 기꺼운 마음으로 수락해 주셨고, 한살림이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표명해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은 아시아에서의 광범위한 민중교역망

구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아시아에서의 연대를 보다 넓고 깊게 구축하고자 결의한 바로 이때에 우리는 박재일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은 비통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들의 상실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울고 있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선생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은 설립총회를 마치고 이제 막 첫 융자사업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발걸음을 한 발 내디뎠습니다. 우리들은 이 작은 발걸음을 확실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박재일 선생님의 뜻과 열정을 받아 한살림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걸음걸이를 나아갈 것입니다.

박재일 선생님. 부디 앞으로도 남은 우리들을 먼 곳에서나마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_'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 후지타 가즈요시 대표, 임원과 회원 일동

[ 일본에서, 고베대학 ]

한살림 이사장님 귀하

어제 두레생협 김기섭 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박재일 선생님의 서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김기섭 님의 안내로 선생님 자택에 병문안 갔을 때, 빨리 쾌차하셔서 고베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돌연한 부고를 접하게 되어 놀라움과 함께 너무나 빠른 영원한 이별에 서글픈 마음 이루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셔야 할 소중한 분이었는데, 또 본인도 아직 의욕이 넘쳐 계셨는데, 정말 안타깝고 서글플 따름입니다. 충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박재일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1983년에 있었습니다.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이건우 선생님과 함께 가톨릭농민회 방문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 직후 일본을 방문해 직접 성금을 전달하는 박재일 회장

단의 일원으로 효고현의 유기농업을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그 때, 이치지마의 유기농업을 시찰하셨습니다. 저녁 친교 시간에 한국분들이 힘차게 농민가를 부르시는 모습에 놀랐고, 또 말술을 드시는 것에 놀랐으며,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춤추는 모습에 또 놀랐던 기억이 엊그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 이후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베와 서울에서 교류를 다졌던 것은 저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고베대지진 때 곧바로 위로 방문을 해 주셨고, 한살림 여러분들의 격려 말씀과 함께 많은 지원금을 전달해 주신 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격한 박재일 선생님은 저에게는 항상 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조만간 고베에서 재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재일 선생님께서 쌓아온 공적의 한 부분이라도 잊지 않고 노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우호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선생님, 오랫동안 지도 편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명복을 빕니다. 길고도 힘든 투병이 끝났습니다. 부디 천국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_ 미천한 아우 야스다 시게루 올림

[ 일본에서, 그린코프 ]

박재일 선생님.

우리들과 만나 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운동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것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말일 뿐이라면, 단지 상황을 그럴듯하게 꾸밀 뿐 곧바로 연기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상황을 딛고 상황을 타개하고 현실을 새로이 갱신해갑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또 전개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어떤 사람이 한 것이거나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혼자서 생각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정, 즉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살아 온 동료들이 함께 해온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체현해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것들을 누군가 말로 엮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박재일 선생님. 당신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한국의, 당신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온 '생명운동'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 또 이 운동에 찬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 분명 그런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한살림과 두레의 여러분들은 당신과 헤어져야만

1989년 11월 일본 효고현 유기농업연구회 방문.

하는 오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들 또한 당신과 이별해야만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감사도 같은 정도로 큽니다.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을 자연성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연으로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바르게 탐색하는 것, 거기에 미래가 있다는 것,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당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박재일 선생님. 당신은 생명에 다가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온 당신의 가족 여러분, 당신과 함께 살아온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들에게도 당신은 그러했습니다.

당신의 온화한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온화함 뒤에 지금껏 감

당해온 역경이 있음을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잠깐씩 쉬어가는 듯한, 조용하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 일하면서, 격무로 시달렸을 당신의 생애를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이 살아 오신 궤적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운동은 인류가 마지막까지 싸워가는 것일 듯합니다. 당신과 만날 수 있었던 우리들은 절대 이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맹세합니다.

박재일 선생님, 우리와 만나 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음 편히 쉬십시오.

_ 일본 그린코프의 동료들과 함께,
그린코프공동체 전무이사 히가시하라 고이치로 배상

**[ 필리핀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Cooperative for Rural Development; CORDEV]**

박재일 회장님께서 영면하셨다는 소식에 가슴 깊이 아픔을 느낍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애도를 유가족 분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회장님이 남기신 업적이, 그분의 길을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와 모든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회장님 영전에 애도를 표합니다.

_'농촌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일동

[ 칠레에서, 전 농업통상 대사 ]

삼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도합니다.

뜻밖에 회장님의 부음에 놀랍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먼 길을 떠나 아르헨띠나 브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부음을 접하니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도 올리지 못해 더욱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생전에 회장님이 시작하시고 일구어 놓으신 환경·유기·생태 생명농업 발전의 유지를 받들고 이어나갈 것을 삼가 다짐하며 떠나시는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회장님,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_멀리 브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양부 삼가 올립니다

[ 중국에서, IFOAM CHINA ]

박재일 선생의 작고 소식을 듣고 저는 깊은 슬픔과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좋은 동행자를 그리고 오랜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2년 전 이탈리아에서 그분을 만났던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그분과 함께 했던, 잊지 못할 추억들을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유가족과 또 한국에 있는 제 친구(동지)들이 선생님을 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텐데, 비통한 슬픔에서 감정을 잘 추스르셔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_Zhou Zejiang IFOAM China 대표

[ 태국에서, GreenNet ]

깊은 애도의 뜻을 통절한 슬픔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Vitoon Panyakul GreenNet 대표

[ IFOAM 세계본부 ]

박재일 선생의 작고 소식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8년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IFOAM 세계유기농대회에서 만났던 박재일 선생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화가 깃든 밝은 세상에서 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_Vanaya Ramaprasad IFOAM 세계 이사, Green Foundation 대표

[ 동티모르에서, 샘물이 솟아 큰 강을 이루는 연구소Kdalak Sulimutuk Institute ]

동지 여러분,

박재일 회장님을 떠나 보내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_'샘물이 솟아 큰 강을 이루는 연구소'와 동티모르 공동체 일동

[ 필리핀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Cooperative for Rural Development; CORDEV]

유족들과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일하셨던 모든 분들께 애도를 전합니다.

회장님의 영면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5년 전,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방문하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운동 방향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에 진심어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우리의 민중교류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박 회장님은 중요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회장님은 떠나가시며,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크나 큰 빈자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가난한 이들에게 큰 버팀목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선한 업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박재일'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_농업개발위원회 대표 Khaled Hidmi 외 일동

[ 팔레스타인에서, 농업 부흥 위원회Palestinian Agricultural Relief Committe; PARC ]

동지 여러분,

박재일 회장님의 영면 소식은 우리를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지도자이셨고 동시에 친구이셨으며 정의를 위해 싸

우는 강인한 투사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위대한 업적이 유족과 동지들, 그분을 아는 모든 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애도를 전합니다.

_팔레스타인 농업부흥위원회 일동

**[ 필리핀에서, 대안무역재단** Alter Trade Foundation, INC; ATFI **]**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의 이사였던 한살림의 박재일 회장님께서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민중기금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회장님께서 민중 연대의 숭고한 원칙과 목표에 깊은 뜻을 두셨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족분들과 친지분들께 우리의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_진심을 다하여, 대안무역재단 이사 Edwin Lopez

**[ 파키스탄에서, 알카일 비즈니스 그룹** Al-Khair Welfare Society / Business Group; AKBG**]**

박재일 회장님께서 영면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 분들과 친지들께 저희들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회장님께서 평화 속에 잠드시기를 기원합니다.

_알카일 비즈니스 그룹 대표 Mohammad Mazahir 외 일동

아버지 박재일

## “나는 한살림이 참 좋아. 참 재미있었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솔뫼마을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인 다섯 딸이 조문객들에게 드린 인사입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가 투병을 하시면서 옆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는데 오늘의 이 상황은 여전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다섯은 어머니와 함께 꿋꿋이 이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저희가 가졌던 기억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늘 같은 모습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2년 동안 투병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 모두가 경험했던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 기억들을 여러분께 나눠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중에 행복하셨는지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_첫째 딸 박순원

막내딸의 이야기

## "딸 다섯 가진 아버지는 한살림을 하게 된다"

저는 막내딸 박주희고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투병 생활과 그 때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구강 수술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되게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를 보시더니 "아빠가 하나도 안 아파" 하시면서 팔다리를 막 움직이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강하신 분이구나' 느꼈고요.

또 아버지가 평소에 저희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편찮으시면서 저희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려고 하신다면서요. "사랑한다. 아빠가 미안해"하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아빠도 그러셨어요. 투병 중에 아빠가 평소에 가시기 원하시던 솔뫼에 저희 보고 3층 집을 짓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딸들에게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해 주고 가셨어요.

셋째 언니인 소현이는 아이들의 교육에 똑 부러지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넷째 언니인 현선이는 아이들과 잘 노니까 신나게 놀아주라 하고, 막내인 저에게 되게 막중한 임무를 주셨어요. 국제적인 관계나 정리를 잘하니까 사무를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그런데 큰언니인 순원 언니랑 둘째 언니인 정아 언니에게는 아무

역할도 안 주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배가 딸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왔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딸 하나를 키우면 아버지가 진보가 되고, 딸 둘을 키우면 좌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딸 셋을 키우면 혁명가가 된대요" 이러셨더니 저희 아버지가 또 한유머를 하셔서 "딸 넷 가진 아버지는 생명운동가가 되고, 딸 다섯 가진 아버지는 한살림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때문에 한살림이 만들어졌네" 이랬더니 아빠가 "그럼!" 하시던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두 손으로 산소마스크를 빼시면서 컵처럼 받치시고 "물, 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 걱정을 해서 "드릴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왜, 왜?" 이러시면서 너무 예쁜 눈웃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던 아빠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한다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근데 아빠, 저희는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아빠랑 보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주신 큰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막내딸 올려요.

넷째 딸의 이야기

## "내가 네 살짜리 손주들에게 예쁨을 받아야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넷째 박현선입니다.
아버지랑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뿐이지만 저는 투병 생활 중에 죄송스러웠던 기억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강암 수술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잘 받으시고 집에서 열심히 회복을 하시던 중에 척추에 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저희가 정말로 많이 좌절하고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어리석은 생각에 아버지께 의논드리지 않고 혼자 자료를 찾아서 온열치료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보고 덜컥 기기를 사서 친정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는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아버지 화를 좀 가라앉혀 드리려고, 아버지께서 화내시면 그게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엄마도 같이 쓰시면 된다고 그렇게 아빠를 설득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셨어요. 전날 저녁에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그걸 한 번 해봤다고, 아주 좋다고. 니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않고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께 먼저 의논드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저지른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신 몸이 어떻건, 당신 상태

가 어떻건 상대방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신 그런 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척추암이 전이되고 2차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실 때 워낙 통증이 심하셔서 제가 운전을 하고 동생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부축하고 또 언니가 집에서 동갑내기 네 살짜리 아이 둘을 봐 주고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다녔었거든요. 언니는 친정집에서 아이 둘을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신천 한살림 매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꼭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네 살짜리 손자들 주게 한살림에 가서 맛있는 것 사 가자. 애들 간식거리 사 가자.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걸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땅콩카라멜하고 양갱하고 그런 걸 사다 주자. 내가 네 살짜리 손주들에게 예쁨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매일 매일 그렇게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가 너무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하셨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아버지에게는 무리가 되어서, 열 번 중에 딱 한 번만 그걸 허용해 드렸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를 추억하는 지금, 너무 아빠가 많이 보고 싶고요.

안녕히 가세요. 아빠.

셋째 딸의 이야기

## “엄마들이 원하는 음식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과자를 사 주어라”

안녕하세요. 셋째고요. 박소현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십 년을 살다가 들어왔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면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너무 철없게 아빠에게 항상 그랬는데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철이 들어갈 때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아빠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그랬어요. 오자마자 아빠께서 위암 수술을 하시고 또 구강암 수술하시고 이래서 솔직히 저는 아빠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그랬거든요.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인간의 고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아빠가 온 몸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큰아들이 5학년인데 어쨌든 아이도 챙겨야 해서 캠프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 년 사이에 부쩍 커서 여름옷이 바지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승재가 내일모레 캠프를 가는데 바지가 하나도 없어서 바지를 좀 사야겠어” 이렇게 동생하고 언니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단 한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통증에 시달리고 있던 아빠가 그 와중에 갑자기 막내한테 지갑을 가져오라고, 쉬

는 중에 빨리 지갑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떨리는 손으로, 기운 없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반드시 이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승재 바지 사는 데 쓰라고, 원하는 옷 다 사주고, 네 살짜리 손자들 데려가서 엄마들이 원하는 음식 말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과자를 사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가서 저희 아이의 옷과 과자를 사 가지고 와서 아빠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빠께서 그 힘없는 모습에서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잘했다'는 듯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십 년 간 외국에 나가면서 아빠와 나누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 감사히 받았고요.

또 저희 아빠께서 항상 의식이 돌아오시면 이렇게 크게 두 팔을 벌리고 사람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고요. 그리고 병문안 오신 분들께 항상 두 손 모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빠 딸로 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둘째 딸의 이야기

## "한살림은 식량 자급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화두를 가지고 신나게 해"

저는 둘째 딸 정아예요. 저희 아버지가 구강암 수술을 받으러 입원하시면서 《밥상 혁명》이라는 책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수술 전날까지 그걸 다 읽으시고요.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거 꼭 읽어 봐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열 네 시간을 받고 그 다음 날 회복하시고 의식을 찾으시니까 "그거 읽어 봤냐?"고 하셨어요. 말씀을 못하셔서 필담으로 "읽어 봤냐? 니 생각은 어떠냐?"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한살림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즐거운 활동들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고, 한살림은 식량 자급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그 화두를 가지고 신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구강암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되시면서 아버지한테 큰 꿈이 하나 있었는데 한살림 쉼터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한살림운동 한다고 늘 고생하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을 때 언제나 쉽게 찾아와서 그냥 편히 쉬고 다시 기운 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고 싶어 하셨고 그 쉼터 옆에 조그만 토담 짓고 텃밭 가꾸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시면 밥 짓는 것부터 배우고 코펠도 사신

다고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셨고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 몇 주간은 정말 어린아이, 천사 같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의식이 돌아오면 솔직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나는 한살림이 참 좋아. 참 재미있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는 한살림은 아빠 혼자 만들어 가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노력으로 같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식을 늘 궁금해 하셨고요.

늘 사랑하셨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딸의 이야기

## "나에게 딸이 다섯이 있는데 곱고 예쁘게 잘 커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13일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며칠 지난 후 열흘 가까이 혼수 상태셨어요. 그때 저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서 돌아와서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시고 나서 저희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답으로 주셨는데요.

첫째 날. 저희는 아버지가 혼수상태라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하셨나?" 그랬더니 "첫째 날, 동그랗고 밝은 빛의 아기 영들과 아기 천사들과 춤추고 놀았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다음날, 둘째 날" 이렇게 쓰시고 아버지께서 그 동그랗고 밝게 빛나는 영들과 함께, 그들을 아기 천사라고 하셨어요. 아기 천사하고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 지리산, 바다들을 다니시고 민민회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깨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뵈었다고. 그런데 하느님을 뵈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그 얼굴이 주희를 가르치면서 "너랑 닮았어!" 이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뭐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딸이 다섯이 있는데 너무 곱고 예쁘게 잘 커 줘서 너

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랑하셨대요. 그렇게 하시고 당신 모습도 보고 오시고 그래서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의식을 잃으셨는데 투병 내내 가끔 깨시면 너무나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몸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이러면서 “나, 이 몸에서 나가고 싶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고통 중에 있는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결정하시니까,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걸 돕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펼쳐 주신 저희에 대한 하느님께 고하는 그 지극한 사랑이 앞으로 저희 살아가는 평생에 저희의 그늘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더 든든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짧게 위로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설움에 복받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근원으로써 빛을 따라서 천상에 들었다고 오늘까지만 슬퍼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 언론이 전한 박재일 선생 추모 기사

'한살림 창설' 박재일 명예회장 별세

# '생명운동의 대부' 흙으로 돌아가다

'생명운동의 대부' 인농(仁農) 박재일(사진)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

1964년 서울대 지리학과 재학 때 한일협정 반대시위로 투옥됐던 고인은 73년 가톨릭농민회를 시작으로 농민운동에 투신, 농업과 생명 철학에 바탕한 새로운 형태의 운동 방식을 우리 사회에 제시했다.

80년대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 김지하 시인 등과 농업과 협동조합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고인은 친환경농업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환경 파괴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을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고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확산과 판로 확보를 위해 86년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한살림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20여년. 그는 한살림을 22만 소비자 회원, 2천여 생산자 회원, 유기농산물 판매액 1600억원대의 대형 협동조합으로 성장시켰다.

그가 이끈 한살림 운동은 친환경농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친환경농업 관련 부서 설립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안전한 먹을거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 서울환경상 대상, 친환경농업대상, 정일형·이태형 자유민주상, 일가상 등을 받기도 했다.

고인은 최근 몇년 동안 로컬푸드에 관심을 두고 한살림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와 지역 자립의 공동체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찾아온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옥련씨와 딸 순원(한살림 성남용인 전 이사장)·정아(한살림 성남용인 이사)·소현·현선·주희씨, 사위 유인상(토프로 대표)·조경상(건국대 생명과학과 교수)·정길상(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김철환(금융결제원 근무)씨가 있다. 장례는 한살림장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발인 21일 6시30분. (02)2258-5979.

권복기 기자 bokkie@hani.co.kr

사진 한살림 제공

2010년 8월 20일 〈한겨레신문〉

가신이의 발자취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 당신의 실천이 일군 변화를 기억하며

가신 이를 기리는 상투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훌륭한 인물 박재일을 저세상으로 보냈다.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숨하게 많은 판에 박재일이 먼저 간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박재일의 학생운동가 면모,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협동조합 '한살림'의 성공담과는 별개로 숨막히는 군사정권 시절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감이 나에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가로서 고 지학순 주교·장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원주권'을 서울의 재야 세력과 연결하는 고리의 하나가 박재일이었는데 이 일에는 김정남과 정성헌을 빼놓을 수 없다. 박재일을 처음 만났을 때 당당한 체구와 과묵함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느꼈으나 말 술이 적을 뿐 그는 의견전달자로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다.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이른바 '오원춘 사건' 당시 그가 안동에서 열린 집회에서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을 앞에 놓고 행한 열변을 나는 현장에서 들었다. "형제 여러분"이라는 그의 말문은 신앙 공동체에서 흔히 쓰는 것이지만 그때 거기서는 가식과 위선의 냄새가 풍기지 않았다. '농협 민주화', '우리 밀 살리기',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운동가로서 실천해 온 그의 삶 자체가 담보된 표현이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 학생운동·농업운동가로 늘 말보다 몸이 앞섰지요

과묵함의 또다른 일면이겠으나 경북고-서울대 출신인 박재일은 학력을 자랑하는 패들이 흔히 즐긴 이데올로기 담론에서 거리를 둔 사람이다. 도산 안창호가 말한 '무실역행'이 어떤 것을 상상했던 것인지는 짝어낼 수 없지만 농민운동가와 협동조합 조직 및 관리자로서 묵묵히 일하여 구체적 성과를 올린 박재일은 우리 시대의 그 살아 있는 본보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젊은 세대는 무실역행이란 표현이 고리타분하다며 그 실체에 의문을 던질 것이다. 번드르르한 변설보다 실천을 중요시하며 그 일에 자신이 앞장서는 자세가 박재일이 보여준 것이라고 답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박재일은 이를테면 분단 시절 서독의 사민당 수상 헬무트 슈미트 같은 사람이다. 그는 화려한 수사의 사민당 이론가가 아니었고 현장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독일말로 마허(Macher·실행자·실행지도자)가 슈미트였다. 10여년 전 독일인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의 아버지는 사회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실천가 슈미트가 좋아서 사민당에 표를 던진다는 거였다.

가신 임, 박재일의 뜻을 잇는 길은 더 많은 박재일이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임재경/언론인

2010년 8월 21일 〈한겨레신문〉

김지하 시인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추모시' 본지 기고

## 생명은 그이의 평생 화두

시대는 생명의 때다.
평화와 함께 생명이 이 시절의 총 화두다.
그 생명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걱정하고 애써 마련하는 이가 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때다.
박재일.
이 분이 바로 그 귀한 분이다.
이 분이 돌아가셨다.
어찌 서운하고 서럽지 않으랴!
평생을 생명 한 글자에 그야말로 생명을 바치신 분. 남들 몰두하는 일체 가치 너머 삶의 근본에서 그 근본을 꿰뚫 때 더욱이 그것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렇다! 생명적으로 관철하셨다.
'생명분제의 생명적 관철'
모심!
'밥'이다.
'밥'이 박재일 선생의 최고 철학이었다.
구하신 분 가시는 길에 어찌 상서로운 꽃다발이 없을 수 있으랴!
나사렛 예수는 밥을 '사크라리온', '현실적 신성성' 혹은 '거룩한 지역'이라 불렀으니
聖餐(성찬)
雲門禪師(운문선사)는 '癌塵三昧(진진삼매)'라, 다름 아닌 '華嚴法身(화엄법신)'이라 하였으니
한살림!
해월 선생은 '밥 한 그릇이 萬事知(만사지)'라 드높이 칭송하였으니
모심!
박재일 선생은 바로 이 '현실적 신성성', 곧 현대문명사 최고의 숙제인 '마음 속의 몸'을 실사적으로 탐구하신 수도자다.
다름 아닌 '산알'이다.
이제 우리는 깊이 고개 숙여 이 분의 뒤를 따르는 일, 참으로 거룩한 '사리'를 찾아 현실의 숲과 몸을 헤쳐나가야 할 때다.
안심하고 편히 가소서 총총.

경인 2010년 8월 19일 못난 벗 김지하 삼가 모심

※시인 김지하는 생전의 박재일씨와 대학 시절부터 나란히 반독재 투쟁을 펼쳤으며, 원주에서 함께 유기농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를 본지에만 보내왔다.

# 도시·농촌 잇는 '생명농업' 일구다 흙으로

**삶과 추억**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농업과 생명 살림의 꿈 실현에 평생을 바친 인농(仁農) 박재일(사진)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오전 5시20분 별세했다. 72세. 고인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1960년 서울대 지리학과에 입학, 4·19혁명에 참여했다. 64년 김지하 시인 등과 함께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6·3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 뒤 시민운동가인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인연을 맺었으며 69년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농민 삶 개선과 농촌 개혁을 위해 주민자치, 협동조합운동을 펼치며 가톨릭농민회장을 지냈다. 80년대 들어 지학순 주교 등 원주지역 사회운동가들과 뜻을 모아 새로운 분명운동을 모색하다 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이듬해 12월 서울 제기동에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쌀과 참기름·유정란 등을 직거래하는 '한살림 농산'을 열어 새로운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한살림은 친환경농산물 도·농 직거래를 통해 유기농 인식을 확산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는 공동체문화 복원에 기여했다.

한살림은 현재 22만5000여 명의 소비자조합원 명과 20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참여한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고인은 91년 시작된 우리밀살리기운동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94년부터 8년 동안에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한살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진 생명농업이라는 화두는 결국 90년대 친환경농업 지원법 제정과 농림부 친환경정책과 신설 등 관련 법·제도 마련에 큰 영향을 줬다. 이 같은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서울환경상 대상, 친환경농업대상,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일가상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옥련 여사와 순원(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정아씨(한살림성남용인 이사) 등 5녀, 사위 유인상(topro 대표)·조경상(단국대 생명과학과 교수)·정길상(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김철환씨(금융결제원 근무)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이며, 장례는 한살림장으로 치러진다. 21일 오전 6시30분 발인에 이어 오전 8시 서울 방배동성당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02-2258-5979(빈소), 02-6931-3625(한살림). 이한원 기자 leehw@joongang.co.kr

2010년 8월 20일 〈중앙일보〉

#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별세

친환경 농업 확산과 공동체 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仁農)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오전 5시20분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지리학과 재학시절인 1964년 김지하 시인 등과 함께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뒤 강원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과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했다. 1982~1984년 가톨릭농민회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 한살림공동체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친환경 농산물의 저변을 확대에 힘썼다.

또 1991년에 시작된 '우리밀살리기운동'에 공동대표로 앞장섰으며, 1994~2002년까지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친환경농산물의 도농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기농업에 대한 저변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빈소 강남성모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6시30분, 장지 충북 괴산군 삼송리.

2010년 8월 21일 〈한국일보〉

##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별세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보급과 공동체 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仁農)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했다. 72세.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서울대 지리학과 재학중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뒤 1969년 강원 원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과 생명농업운동을 펼쳤다. 1988년 한살림공동체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친환경 농산물 도·농직거래를 통해 유기농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복원에 애썼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이며, 발인은 21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02-2258-5979

2010년 8월 20일 〈문화일보〉

##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별세

친환경 농업 확산과 공동체 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仁農)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지리학과에 재학하던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뒤 협동조합운동과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했다. 82~84년 가톨릭농민회장을 지냈고 88년 한살림공동체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친환경 농산물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유족으로는 이옥련 여사와 딸 순원, 정아, 소현, 현선, 주희 씨, 사위 유인상, 조인상, 정길상, 김철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6시30분(02-2258-5979).

2010년 8월 20일 〈국민일보〉

##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별세

친환경농업 확산과 공동체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仁農) 박재일(72)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오전 5시 20분 별세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뒤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과 생명평화운동을 벌였다. 가톨릭농민회장을 지냈다. 빈소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79

2010년 8월 21일 〈조선일보〉

##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친환경농업 확산과 공동체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오전 5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지리학과에 다니던 1964년 김지하 시인 등과 함께 한·일 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인연을 맺고 강원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협동조합운동,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했다. 82~84년 가톨릭농민회장을 지냈으며 86년 한살림농산, 88년 한살림공동체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한살림은 한국 최대의 생협으로 성장하며 다른 생협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인은 91년 시작된 '우리밀 살리기운동'에 공동대표로서 앞장섰으며, 94년부터 2002년까지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철탑산업훈장, 서울환경상 대상, 친환경농업대상, 정일형·이태형 자유민주상, 일가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옥련씨와 5녀가 있다. 장례는 한살림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6시30분. (02)2258-5979

2010년 8월 20일 〈경향신문〉

##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별세

친환경 농업 확산과 공동체 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仁農)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오전 5시20분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지리학과 재학시절인 1964년 김지하 시인 등과 함께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뒤 강원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과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했다. 1982~1984년 가톨릭농민회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 한살림공동체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친환경 농산물의 저변을 확대에 힘썼다.

또 1991년에 시작된 '우리밀살리기운동'에 공동대표로 앞장섰으며, 1994~2002년까지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친환경농산물의 도농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기농업에 대한 저변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빈소 강남성모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충북 괴산군 삼송리.

2010년 8월 21일 〈세계일보〉

## 부고

■박재일씨(한살림 명예회장) 별세, 순원씨 정아씨 현선씨 주희씨 부친상, 유인상씨 조인상씨 정길상씨 김철환씨 장인상=19일 오전 5시2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6시30분. (02)6931-3625

2010년 8월 20일 〈머니투데이〉

## 부고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 별세=친환경 농업 확산과 공동체 문화 복원에 힘써온 인농(仁農) 박재일 한살림 명예회장이 19일 오전 5시20분 별세했다. 향년 72세.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1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충북 괴산군 삼송리.

2010년 8월 20일 〈재경일보〉

회장님
장일순 선생님
만나서
반가